

#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김승욱 교수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연말이면 의례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정말 작년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헌정사의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변화와 전쟁의 위험 등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해서 계속 구독하시면서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와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첫해의 표지인물로는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중앙회 두상달 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월드뷰』가 삶의 현장, 즉 가정, 직장, 사회 등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한국기독실업인회의 활동은 본보의 정체성에 꼭

맞는 활동입니다. 특히 (주)칠성산업의 대표인 두상달 장로는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아내 김영숙 원장과 함께 (사)가정문화원을 운영하면서 부부 가정사역 상담사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40년 노부부가 함께 결혼 주례를 하는 모습이 특이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세중(아주대 겸임교수, CBMC 새서울지회 중경회장)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적폐청산: 개혁인가 정치보복인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적폐청산을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집권 후에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며, 조선시대의 당쟁의 후유증으로 발생

한 사회에 준한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것은 사회 이슈를 주로 다루는 본보가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를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는 이유로 민감한 주제를 외면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를 분별하는 눈을 키워준다는 본보의 발행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손봉호 대표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부패가 심하고 투명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논란은 있지만, 적폐청산으로 부패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익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정권교체로 쌓인 비리를 뿌리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계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영길(I&S 법무법인) 변호사는 보편적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 정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 정부의 개혁은 성경적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진정한 국가개혁은 성경에 부합되는 법치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철(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변호사는 언론적폐청산이 이해관계자인 노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성기진(정치철학) 박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라는 절차나 다수결 법칙 등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의 통치를 그나마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였으므로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 이후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적법절차를 따르냐의 논리보다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원(충신대) 교수는 적폐청산 작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둘째 공정한 과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을 평가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념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연재 칼럼들을 시작합니다. 먼저 백석대학교 이우제(설교학)교수께서 ‘기독교세계관으로 사는 삶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매월 연재합니다. 그는 요한 계시록이 불건전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온상이 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65권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 관한 것이며,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종말론은 현재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원론적 사고를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라는 미래 때문

에 새로워지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계시록을 궁극적인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오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영화읽기 칼럼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특집 주제와 연결이 되는 영화를 소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김철홍(장신대) 교수와 남정욱(숭실대) 교수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철홍 교수가 레미제라블과 적폐청산을 연결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장 발장 유형의 인간과 자베르 형사 유형의 인간의 차이를 ‘자기 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적폐청산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술 칼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웅대(국민대 조소과) 교수와 심상용(동덕여대 미술평론)교수께서 기독교 미술 작가의 작품 및 전시회도 소개하고, 중요한 기독교 미술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엮은 최충희 사모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2002년에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최충희 사모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에서 22년간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있었던 일들을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선교회’ 라디오 방송에서 〈최충희 칼럼〉을 진행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칼럼 중의 일부는 단행

본 『희망 온 에어(홍성사 간)』로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칼럼 중의 일부를 본보 지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워진 『월드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